環境改善이 共同의 關心事

盛況이룬 化工學 國際會議

沈 祖 馨 中國化工學會長人事

韓國化學工學會가 創立 10주년 기념행사로 「로얄·호텔」과 韓國科學技術硏究所에서 개최한 化學工學國際會議는 3일간의 日程을 모두 마치고 10月 19日 막을 내렸다.

韓國·美國·英國·佛蘭西·日本·中國 등 內外學者 약 2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 회의에서는 3명의 招請講演 3명의 一般講演, 44편중(그중 외국인 11편)의 論文發表가 있었다. 특히 注目을 끈 講演과 論文을 간추려 본다.

招請講演者의 한사람인 美國 「콜로라도」大의 「A·I·존슨」博士는 生産化學工學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컴퓨터·콘트롤·시스템」과 「코뮤니티·플래닝」간의 類似性』이란 題目으로 강연을 했다.

동박사는 汚物處理, 大氣汚染淨化, 경찰의 범죄수사, 病院의 診療 등 地域社會의 불가결한 요소 등의 最適活用에 대한 것이 工場에서 工程을 제어하는 문제와 類似함을 지적하고 나서 몇가지 「모델」을 제시하여 「컴퓨터」로 지역사회를 효율있게 개발할 수 있다고 力說했다.

또한 존슨박사는 이를 위해선 地域社會 要素들의 哲學的인 評價가 필요하며 技術이 政治나 哲學的인 次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國 「아이오아」州立大學의 황선탁박사는 生物工學專門家로서 최근의 人工위장과 人工간장의 발달상에 대해 상세한 사진과 「데이타」를 들어 설명했다. 황박사는 앞으로 의학과 電子工學, 의학과 化學工學 등이 굳게 손을 잡아 형성되는 醫工學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의 가지가지의 難治病을 극복하여 수명 연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外國學者의 發表 가운데서 특히 「오하이오 케이스·웨스턴 리저브」大의 「앵거스」박사가 발표한 「마술의 光線」인 「레이저」의 새로운 활용법은 큰 주목을 끌었다,

韓國化學工學會는 62년 12월 8일에 창립회를 가졌다. 그 때만 해도 우리나라 化學工業은 胎動期에 있었기 때문에 創立된 學會員은 겨우 2백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천2백명을 헤아리게 됐다.

이번 總會에서는 동學會를 창설, 육성한 서울대 工大 化工科 교수 李載聖박사에게 功勞賞을 수여했고 忠州「시멘트」의 尹錫昊工場長에겐 電解法으로 가성「소다」 및 염산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 조업한데 대해 技術賞을 수여했다, 그리고 신임會長으론 金永生씨(진해 화학상무) 副會長으론 沈貞燮 박사(서울大工大化工科교수)를 선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美오하이오州케이스
웨스턴리저브大學校
존·C·앵거스교수